

민 정 실	음 진 천	<h1>BUDDHANARA</h1>
-------------	-------------	---------------------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 매월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교리 탐구
- 매월 넷째주 일요일 11시 108 대참회 기도 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법회장소가 확보될때까지 지역 법등 법회는 쉽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부처님은 너의 주인이시고
 부처님은 너의 귀의처이니,
 장사꾼의 좋은 말 (馬)을 훈련시키듯
 수행에 전념하라.

For thy Self is the master of thyself, and thy Self is thy refuge. Train therefore thyself well, even as a merchant trains a fine horse.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4 년은 부처님 말씀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세계화는 지구 파괴... 불교가 대안”

생명환경의 위기를 극복할 상생의 문화 창조를 위해 전세계 17 개국 100 여명의 학자 예술가 운동가들이 모였다. ‘세계생명문화포럼’이 경기도 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 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는 인도의 여성 핵물리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반다나 쉬바를 비롯해 리카르도 나바로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 유진 하그로브 미국 노스텍사스대 환경윤리센터 소장, 미조구치 유조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모리에타 바바 미국 미시간주립대 사회과학부 학장 등의 석학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김지하 시인, 유승국 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성균관대 명예교수), 장희익 녹색대학 총장, 박이문 연세대 특별초빙교수, 이병철 녹색연합 공동대표, 최재천 서울대 교수, 인드라마생명공동체 대표 도법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전체마당에서 반다나 쉬바 여사는 기초발제에서 세계화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생명의 경제를 주창했다. 쉬바 여사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지배적 사고방식의 배제적인 단일문화는 △자원의 파괴, 토지와 생물다양성, 물과 식량에 대한 독점 △빈곤의 심화 △민주주의 평화 문화적 다양성의 파괴를 야기한다”며 진정한 부(富)에 대한 바른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부는 우리의 토지, 물, 생물다양성이요, 우리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이며 상호성과 사랑에 근거를 둔 우리의 인간관계”라며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불살생과 비폭력적 경제 질서를 위한 필수적인 지표”라고 밝혔다.

김지하 시인은 “상생과 평화를 일상적인 삶, 살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며 “옛사람들의 계(契)와 같은 다층다중한 비정부민중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구축하고 생명을 보위하는 구체적 합의와 방안을 제기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교와 유교 등 동아시아의 사상적 기반에 대해 경전을 근거로 인용하며 동아시아의 전통인 상생을 강조한 유승국 명예교수는 “우리의 생명은 모든 것을 바쳐 존엄하게 만들어야 하며, 생명이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화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유주의 국가와 더불어 사회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근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진정한 평화와 상생의 원리를 추구하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것”이라며 “인류의 평화와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상생의 원리를 환기시키는 운동을 끊임없이 일으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체마당에 이어 19일부터 진행된 개별 주제마당에서는 ‘생태주의와 생명사상’, ‘생명의 문화적 통로’, ‘공생의 삶과 생명의 경제’, ‘동아시아의 역사와 상생’ 등 4 개의 주제가 논의됐다. 특히 참여불교 새만금 3 보 1 배 정진 등 불교가 대안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조경만 교수(목포대 역사문화학부)는 새만금 갯벌지킴이 현장을 체험하면서 3 보 1 배 정진에서 그 어떤 구호보다 강한 침묵과 참회의 힘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3 보 1 배는 인간의 권리표현이자 다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행위다.

조 교수는 “3 보 1 배에 동참한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 삶과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의미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며 “삶 전체의 가치, 세계관, 자기 행위를 이끄는 강력하고 궁극적인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미국에서 명상수행을 주도하며 깨달음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시각디자이너 수잔 레이시 학과장(오티스 예술디자인대)은 참여불교와 예술의 사회성을 대비시키면서 “우리는 예술을 제작하고 예술은 우리를 제작한다”는 의미있는 말을 남겼다. 참여예술가는 개인주의와 고립에 저항하고 진심, 연민, 이해의 문화를 살찌우는 의식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고단한 길을 걷는다. 구체적인 사회상황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실천하는 참여불교도의 정신과 맥이 닿는다.

레이시 교수는 “참여예술과 참여불교는 관찰방식의 반성이고 창조성의 실천이고 사회적 관계망의 계몽일 뿐 아니라 가치의 진술”이라며 “둘다 영적 실천 일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노력”이라며 그 유사성에 대해 강조했다. 생명문화포럼은 생명문화선언문을 채택하고 20 일 폐막됐다.

[불교신문 1993 호/ 12 월 26 일자]

부처님의 가르침 : 가슴으로 읽는 경전의 말씀

- 삶의 무상성을 깨닫고 나면... 허망함 알면 '진리의 삶' 눈뜨게 돼-

부처님이 베살리의 대림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이 숲을 산책하다가 욕가 장자를 만났다. 장자는 여자시중을 거느리고 왕과 같은 호사를 누리다가 술이 취해 혼자서 숲 속을 헤매는 중이었다. 장자는 단정하고 원만한 상호와 위신이 의젓한 부처님의 모습을 뵈자 금방 술이 깨었다.

부처님은 그를 위해 품행을 단정히 할 것과 이웃에게 보시할 것, 계율을 잘 지킬 것을 차례로 말씀했다. 이어서 욕심이 재난의 근본이 된다고 꾸짖고 생사는 더러운 것이라 이르고 고집멸도 사제법을 설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장자는 의심과 미혹을 끊고 이내 바른 법을 깨달았다.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받아 재가신자가 된 장자는 집으로 돌아가 모든 아내를 불러모아놓고 제 갈 길을 가라고 했다. 둘째는 물론 첫째부인마저 개가를 원하자 금은보화를 나누어주며 그녀를 시집보내 주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아낌없이 보시했다. 부처님과 제자는 물론이고, 멀리서 오는 여행자, 가난한 사람, 병자에게 널리 자선을 베풀었다.

어느 날 욕가장자의 장사배가 바다에 나갔다가 침몰되어 큰 재산을 잃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선을 베푸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도리어 더 많은 재산을 내어 보시를 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를 알게 된 비구들은 그가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난다를 대표로 뽑아 비구대중들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아난다는 욕가장자를 찾아가 비구대중들의 뜻을 전했다. 장자는 비구대중의 뜻이라는 말을 듣고 마지못해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여전히 섭섭한 눈치였다. 아난다는 장자가 왜 그렇게 무리를 해가며 자선을 베풀려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장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난한 사람의 소원은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을의 부자는 성중의 제일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성중의 부자는 나라에서 제일가는 대신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나라의 가장 높은 대신은 작은 나라라도 왕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작은 나라 왕은 전륜성왕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전륜성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수행자처럼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지극한 마음으로 집을 버리고 도를 배우는 사람이 되었으면...그리하여 위없는 범행을 닦아 스스로 깨닫고 성취하여 다시는 윤회고를 받지 않았으면...’

아난다 존자님.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저 전륜성왕처럼 모든 재물이 다 마르도록 베풀고 또 베풀어서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고 해탈을 이루는 것입니다.” 장자의 말을 들은 아난다는 ‘그것은 참으로 기특하고 거룩한 생각’이라고 칭찬하고 그의 공양을 받고 설법한 뒤 정사로 돌아왔다. -중야합9 권39 경 <욕가장자경(郁伽長者經)>.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나 부자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출가를 결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국의 순치황제가 그랬고, 신라의 부설거사 그랬다. 얼마 전에는 홍콩의 유명한 배우 이연걸(李連杰)이 배우로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티베트의 절로 들어가 수행할 뜻을 밝혔다. 중화권에서 유명한 소프라노 이나(李娜)도 절에 들어갔고, 여배우 황원신(黃元申) 최태청(崔答靑)도 은퇴한 후 절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총장, 방송국 사장을 역임한 저명인사들이 불교에 귀의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렇게 각 분야의 정상에 섰던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삶의 무상성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경에 나오는 욕가장자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진정한 불교적 삶이란 이렇게 무상성을 깨닫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홍사성의 부처님이야기에서 발췌)

불교 용어 공부: 코끼리와 불교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극락조라 불리는 가릉빈가, 불법을 수호하는 용, 수행자를 경책하는 목어는 물고기를 형상화 한 것이다. 사자도 불교와 밀접한 동물이다. 그러나 코끼리가 단연 앞선다. 코끼리는 위용과 덕을 상징한다.

불교와의 인연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태몽이야기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은 흰 코끼리가

품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부처님을 잉태했다.

코끼리는 힘이 세면서도 유순한 동물이다. 부처님의 오른쪽 협시보살은 보현보살이다. 왼쪽은 문수보살이다. 문수보살이 지혜를 상징한다면,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한다. 이 보현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있다. 코끼리가 자비와 덕(德)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불화나 불상에서도 보현보살은 6개의 어금니가 있는 흰 코끼리 등에 앉아 합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찰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에서도 코끼리(象)가 많이 등장한다. 큰 불사를 치를 때 소임을 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것을 용상방(龍象榜)이라 한다. 고승을 지칭할 때는 용상(龍象)이라고 한다. 전륜성왕이 가지고 있는 칠보 가운데 하나가 상보(象寶)다. 상가(象駕)는 덕망 있고 존귀한 사람이 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코끼리가 경전을 싣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유래했다.

종립 동국대학교의 상징 동물도 코끼리다. 동국대 재학 스님들이 모여 살면서 수행하는 공간도 백상원(白象院)이라고 부른다.

법회소식 NEWS

- 그동안 신도님들의 동참으로 부처님 오신날 연등 제작 불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제작된 연등은 7일 기도후에 일년간 법당에 모십니다. 신도님들은 본인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도 2548년째 맞는 연등불사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권선해 주십시오. 본인도 불사에 동참함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 동참하게 하는 것은 부처님 전에 무량한 복을 쌓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 관동 모연문”은 사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참금은 미국에서는 50불이고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신도님들은 5만원입니다. 형편이 되시는 데로 1인 1등을 하실것인지 가족등으로 한 등을 켜실것인지는 신도님들 각자가 결정해 주십시오.
- 4월 3째주 일요일은 전법기도 및 불교 교리를 발표, 연구, 토론하는 법회날 입니다. 이날 법회에는 신도님들은 각자가 불교 교리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자세로 토론에 임해 주십시오. 이달 주제 발표는 회장 송영희 보살님께서 담당하십니다.
-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도와 참회 그리고 베푸는 삶은 우리불자들과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불국사 신도님들이 끊이지 않고 기도 정진하는 생활을 해 나가는 모습 감사 드립니다. 기도를 집에서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사찰에 알려주십시오. 되도록이면 기도 입재와 회향은 법당에서 가져 주셨으면 하고 입재 축원과 회향축원은 스님이 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불국사 신도님들 도 기도하시는 신도님들을 같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 4월은 짝수 달이므로 4째주는 108 법회가 있습니다. 짝수 달은 108 대참회 홀수 달은 사경법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거주하시는 불국사 신도님이신 조남국 거사님과 김 설아(현심행) 보살님 가족이 불국사 법당에 갈 여름 돛자리를 시주해 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 한국에서 활동하는 불국사 후원회(불국회)에서는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조실 스님이시기도 한 강석주 큰스님께서 운영하는 양로원인 보문선원 안양원에 4월 18일날 대중공양 갑니다. 당일날 서울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온양에 위치한 안양원으로 갑니다. 안양원에서 점심공양을 준비하니 대중공양에 동참 하시는 불국회 회원분들은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불국회 회장님과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